

광주 동네의원 일주일에 1~2곳씩 문닫는다

환자 격감·경영난 심화...건보 급여비 압류도

서구지역은 개원수보다 폐업 의원이 더 많아

문닫는 동네 의원이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만 일주일에 1~2곳의 동네의원이 폐업했다. 또 전국적으로는 하루 평균 4곳 이상의 동네의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환자 격감과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압류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동네의원도 증가세에 있다.

광주 서구지역의 경우, 지난해 문을

연 동네의원은 26개였지만 폐업한 곳은 27개로 오히려 개원보다 폐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전체적으로는 동네의원 10곳이 개원하면 8~9곳이 폐업을 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2년 전국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난해 개원한 의원은 총 1821곳이었으나 폐업 의원은 1625곳에 달해 전국적으로 하루 4.

45개꼴로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이 개원하면 8.9곳이 폐업하는 셈이다.

일반의원의 폐업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9%(828곳)에 달했으며, 출산 감소에 따른 결과로 소아청소년과(119곳)·산부인과(97곳) 의원의 폐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경영난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압류된 요양기관이 2013년 6월 현재 전국 89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압류기관의 절반 이상은 영세한 동네의원으로 파악돼 개원이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

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 숫자는 전국 893곳, 압류액은 4138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급여비 압류기관으로 분류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543곳으로 전체 압류기관의 60.8%를 차지했다.

압류액 규모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아 요양기관 중별 압류액을 보면 의원이 2565억원으로 전체의 61.98%를 차지했고 병원이 1166억원(28.17%), 약국이 335억원(8.

08%)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 상위 10개 요양기관 가운데 의원이 6곳이나 포함됐으며, 상위 10개 기관의 압류 금액은 총 1019억원으로 전체 압류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모 내과 원장은 "환자 감소로 한 곳이 문을 열면 다른 한 곳이 문을 닫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경영 수지가 전혀 안 맞아 건강보험 급여비까지 압류당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환자 10명 중 6명 "원치않는 비싼 병실 입원"

일반병실이 부족해 환자나 보호자의 뜻과 달리 비싼 병실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인실 등 상급병실 입원환자 10명 가운데 6명이 본인의 원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보호자 52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의 59.5%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 병실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3인실 입원환자의 71.7%가 원하지 않는데도 상급병실을 선택했으며 4인실은 환자의 70.3%, 2인실은 69.9%, 5인실은 61.2%가 각각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했다. /연필뉴스



"넷이서 하나가 됐네"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앞길에서 갑자기 가을비가 쏟아지자 4명의 여중생들이 한 개의 우산을 쓴 채 조심스럽게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립 유치원·초등 교사 등 광주시교육청 330명 선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330명을 선발하는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험 선발은 공개전형으로 이뤄지며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300명, 특수학교 11명 등 모두 330명이며 이중 장애인 34명이 포함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4~18일까지이며 시험 편의를 위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연필뉴스

남구, 대형매장 입점 조례 개정 "보류"

주민 의견 수렴 뒤 진행 밝혀...“여론 무마용” 지적도

광주시 남구가 비싼 임대료 때문에 '텀 빈' 신청사를 대형 의류 매장으로 채우기 위해 추진했던 조례 개정을 잠시 보류했다.

철화가 아닌,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지역민 반발을 의식해 '소나기 일단 피하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남구는 신청사 내 대규모 점포 입

점을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주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안건으로 상정하러던 방침을 보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영세 상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마저 포기한 채 신청사 임대 수익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게 남구 안팎의 분석이다.

남구는 신청사 내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공청회·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철화'가 아닌, '보류'라고 밝힌 만큼 청사 임대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여론 무마용 시간 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 청사에는 대기업 점포가 들어서도 지역 상권에는 영향

을 받지 않고 다른 건물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식의 일관성 없는 행정 마인드가 지역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사안인데도, 변변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공청회 등을 진행키로 해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남구 재래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남구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명운동, 집회 등 지역 상인들과 연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5분 해질 18시 03분 달출 12시 40분 달몰 23시 14분

높고 푸른 하늘

대부분 맑은 가운데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었다.

광주	맑음	18/22°C
목포	맑음	18/24°C
여수	맑음	19/23°C
나주	맑음	17/23°C
완도	맑음	18/24°C
구례	맑음	17/24°C
강진	맑음	17/24°C
해남	맑음	18/24°C
장흥	맑음	17/24°C
순천	맑음	16/23°C
영광	맑음	18/22°C
진도	맑음	18/22°C
전주	맑음	18/23°C
군산	맑음	17/22°C
남원	맑음	16/22°C
혁신도	맑음	18/21°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북서	0.5~1.5m	주의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0~2.0m	목포	06:12	11:1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2.0~3.0m	여수	00:37	06:38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0.5~1.5m		13:32	19:52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씨						
최저/최고	13/24	11/26	13/25	12/17	9/18	8/19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 앓은 바닥두께가 원인”

광주·전남 500세대 이상 26% 기준치 미달

광주·전남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1/4 가량이 바닥 두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아파트 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공동 주택 건설 과정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준공된 광주·전남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모두 4만 1465세대(광주 2만7368세대·전남 1만4097세대)로, 이중 26.0%인 8574세대(광주 7707세대·전남 867세대)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바닥 두께 기준(210mm)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전남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모두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벽식 구조는 기둥 없이 천장을 벽이 받치는 방식으로 시공한 것으로, 이 구조에서는 위층 바닥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쉽게 전달된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기둥식)로 건설된 아파트가 층간 소음이 적지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반 아파트에 잘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규 아파트에는 내년 5월부터 강화되는 바닥구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자연산 참옷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옷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옷음식 토종 참옷닭 / 옷 청둥오리 / 옷 삼계탕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촌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옷닭 (9인분 식사소모함) 40,000원

촌담백숙 38,000원

옷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062)515-5757(옷칠옷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부원장 출연)

성사율 호남 1위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초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초혼		재혼	
남	추천의원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